

제25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임시회)

기 획 관 광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 2 호)

해운대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8월 27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관광문화과·일자리경제과·자원순환과) 1면

1.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김경호

(10시 03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제8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에 따른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집행기관의 행사 등을 감안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한 사전에 고지한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경제국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담당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백종기입니다.

먼저 해운대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음에도 8월 들어 또다시 되풀이 되는 안타까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관광경제국에서는 금년도에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사업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다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 부족한 점이나 개선,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우리 관광경제국 직원 모두가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관광경제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손정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상욱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인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창희 문화회관장입니다. 김용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은 상 중이라 참석하지 못

2 (제250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부서별 업무 현황 파악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입니다.

제250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문화과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장 임영옥, 관광축제팀장 김배선, 문화예술팀장 정윤주, 해양관광팀장 김태겸, 다음은 관광정책팀의 진민정 주무관, 문화예술팀의 우미선 주무관, 해양관광팀의 정재훈 주무관, 관광정책팀의 김유리 서무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2020년 업무보고를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호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후반기에 상임위가 바뀔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받는, 소관 상임위의 첫 상견례 겸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이고...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질의만 하기로 했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고 간략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예, 반갑습니다.

○박성식 위원

팀장님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부산시가 국제 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국비 500억 원을 확보했죠?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예.

○박성식 위원

부산시가 1,000억 원하고 5년간 1,500억 원을 국제 관광도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예.

○박성식 위원

우리 해운대구는 국제 관광도시로서 1,500억 원 중에 적어도 30%는 가져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예.

○박성식 위원

아, 300억 원 정도는...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예.

○박성식 위원

300억 원 정도를 가져올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안 그래도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1,500억 원에 대해서 각 구별로 어떻게 쓸 것인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해양 쪽에 치우쳐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사업이라든지 15개 정도의 사업을 반영시켜 달라고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용역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그 사업이 반영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

5년 동안이니까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많은 예산을 따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중에 나왔는데 모바일을 이용한 축제 같은 거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갤러리 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찾아오는 구민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갤러리를 다니면서 투어도 하고 설명도 듣는 것을 매년 해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 (제250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갤러리 4개소를 투어해서 10분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유튜브라든지 구 페이스북에 올려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식 위원

갤러리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 같은 거 이런 것을... 요즘은 언택트(Untact) 아닙니까, 그렇죠? 코로나19로 해서 비대면으로 하니까 다른 축제나 관광시설 홍보나 이런 것까지 다 접목을 시켜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저희들 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상태가 좋아진다고 보고 빛축제를 잘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 여건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고, 사실은 큰 모래축제가 올해 취소됨에 따라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구 입장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보러 오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빛축제 관계는 저희가 하반기에 하는 사항이라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네이버TV라든지 이런 랜선 축제와 병행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

과장님, 상반기 주요성과 중에 콜라보 기념품 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3페이지 맨 위에...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저희가 기념품을 공모로 해서 작년까지 계속해보니까 실제적으로 기념품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접목할만한 기념품이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2년간 위탁 계약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갖고 있는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상품에 접목하는 이런 쪽으로 콜라보 기념품을 만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성식 위원

우리가 관광지 같은 데 방문해 보면 기념품을 한두 개씩 가져오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예.

○박성식 위원

해운대 방문객들은 ‘해운대는 특별한 기념품이 없다.’ 그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맞습니다. 저희는 계층이 다양해서 새로운 사업자하고 계층별로 다양하게, 10대, 20대, 30대가 구매하는 상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올해 4월에 새로 선정됐기 때문에 기념품 개발을 새로 선정된 사업자하고 잘 맞춰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

예, 잘 만들어서 해운대를 대표할만한 기념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

김정욱 위원입니다.

박성식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부산시가 5년간 관광 분야에 1,500억 원의 국비를 받게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박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게 우리 해운대구는 11개 분야를 신청해서 올려놓았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욱

11개는 아니고 15~16개 정도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한 개수는...

○김정욱 위원

해양레저관광 중심으로 15~16개입니까?

○관광문화과장 강경욱

아니요. 해양레저관광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관광 쪽도 그렇고, 저희는 해양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해양 쪽에도 사업을 올려놓은 상태라는 것이고, 그 열 몇 개 안에 들어갑니다.

○김정욱 위원

과장님, 포인트를 잘 맞추셨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주요 예산 현황을 봐도 해양관광팀의 예산이 제일 적네요, 그렇지요?

○관광문화과장 강경욱

예.

○김정욱 위원

2페이지를 보면 해양관광팀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입니까? 해양수산부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2페이지 중간에 해양관광팀, 1억 5,800만 원...

○관광문화과장 강경욱

이것은 해양관광팀의 본예산에 반영된 전체적인 사업비고요. 주요 사업이 이런 게 있다고...

○김정욱 위원

사업 공모를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관광문화과장 강경욱

공모도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우리 위원님 중에도 아시고 계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김정욱 위원

예, 잘 안 됐죠.

○관광문화과장 강경욱

6 (제250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그때는 정확한 용역이 이루어져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김정옥 위원

맞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올해는 용역비를 반영해서... 이 사업이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옥 위원

용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작년에 동남권 거점 해양레저사업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을 했는데, 올해는 꼭 연말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좋은 국비가 해운대구 해양레저관광에 꼭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역점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예.

○김정옥 위원

그러면 2페이지, 관광축제팀 소속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모래축제같이 우리 구가 하는 것도 있고 북극곰 축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 축제도 있고... 9월 20일 경으로 예정되었던 트라이애슬론이었나요? 그게 코로나19로 연기된 것으로... 연기된 겁니까? 취소된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아, 철인 3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소통협력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안에...

○김정옥 위원

아, 소통협력과입니까?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아예 취소네요? 연기가 아니라...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예.

○김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관광팀에 ‘4대 특화사업장 관리’가 있는데, 4대 마리나를 말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맞습니다. 현재 송정에 2개가 있고, 해운대에 1개 있고, 수영강 나루공원 앞에 1개 이렇게 4개...

○김정옥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1인당 개인소득 3만 불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 정책도 달라져야 하는데, 1만 불, 2만 불 시대보다는... 해운대구는 대한민국 관광 1번지이고 관광특구이면서 동시에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이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예.

○김정옥 위원

부서장으로서 1인당 개인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아서 우리 해운대구 관광 정책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간단한 비전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듣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제가 작년에 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해운대라는 얼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옷을 입히는 것은 관광에서 옷을 입혀야 된다, 그래야 완성된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7월 1일 자로 왔는데 큰 비전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큰 기반 시설은 굉장히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

맞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안에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프로그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접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강화시켜서 한다면 큰 인프라가 구축된 데다가 작은 것을 넣는다면 더 큰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옥 위원

좋은 말씀인데, 하나 덧붙이자면 관광이라는 게 옛날하고 달라서 복합적일 수 있거든요. 현대 관광은 수준이 높고... 제가 왜 3만 불 시대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금강산같이 경치 좋은 곳에 가는 관광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운대로 오시는 분은...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예.

○김정옥 위원

그래서 당연히 어떤 축제뿐만 아니라 문화, 교통, 주거, 예술, 미디어 이게 다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관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4차 산업혁명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해운대구의 관광 정책은 그렇게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에 왔고, 그런 수준에 부합하는 관광 행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단순히 축제를 하고 단순히 문화예술 공연을 하는 이런 것 이상으로 더 수준 높은 관광 정책을 수립하셔야 한다는 뜻에서 질의해 보았고 간단히 덧붙여 보았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 본예산도 책정해야 하는데, 바빠 움직여서 내년

8 (제250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정책까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호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서정학 위원

제가...

○위원장 김경호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반갑습니다.

○서정학 위원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네요?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예.

○서정학 위원

한두 달 정도 됐나... 두 달도 안 됐는데, 과장님 업무 파악을 펴떡하셨군요.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아닙니다.

○서정학 위원

그게 일종의 자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하신 것 같네요.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감사합니다.

○서정학 위원

관광문화과에서 과장님이 꼭 추진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업무 보고에 있는 것은 생략하고 이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있다면 말씀을 해보시고요. 빛축제, 모래축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 말고... 해운대를 위해서 차라리 안 하고 절감을 해보겠다, 역발상을 해보신다든지...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저희 관광문화과는 많이 투자를 해야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절감 부분은 사실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일단 해운대라는 브랜드의 가치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한데 사소한... ‘해운대구’ 하면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이 정도로 알고 있고 속속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서 갖고 있는 시설물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이 잘 활용이 안 되고, 문화 쪽에도 해운대에 예술가들이 많다고 하는데... 인프라 구성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움직이는, 활동하는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좀 연계시켜서 활성화를,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다시피 해양 쪽에 4개 거점 사업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더베이101만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3개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공간은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올 작은 예술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연결시켜서 활성화를, 그 공간을 북적북적하게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이 공간에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 숨겨진 공간으로...

○서정학 위원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해운대가 전국적,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니까 찾아오신 분들에게 해운대의 이미지를 어떻게 각인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데 치중을 하는 게 더 안 맞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관광문화과장 강경욱

알겠습니다.

○서정학 위원

과장님께서 김이 빠졌을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축제가 취소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죠?

○관광문화과장 강경욱

지금 전국적으로 대부분...

○서정학 위원

어찌 보면 그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는데요. 그런데도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회의도 8회나 개최한다고 했는데, 잘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라고요.

○관광문화과장 강경욱

예.

○서정학 위원

말이 많던 데니스 오픈하임도...

○관광문화과장 강경욱

예, 챔버...

○서정학 위원

9월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강경욱

예, 작품은 완성해서 9월 안으로 다 설치를 합니다.

○서정학 위원

관광문화과의 관광축제팀하고 문화예술팀에서 예산이 16억 원 정도 쓰이네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예.

○서정학 위원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 위원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답변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감사합니다.

○서정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챔버 설치 장소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공원 이름이 바뀐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거기가 달맞이언덕에 있는 청사포공원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원래가 청사포공원이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예. 달맞이언덕에 있는 청사포공원 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해월정 있는 데...

○위원장 김경호

이름이 조금 안 맞다, 그럴죠? 달맞이공원으로 하든가... 청사포는 그 밑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가 청사포공원이라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공원 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공원 이름명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호

거기에 해운대라고 석각이 되어 있는 돌이 큰 게 있었죠?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해운대 석각...?

○원영숙 위원

달맞이언덕에 석각 있잖아요. 이광수 시비 있는 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그것은 제가 잘... 내용이 파악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예.

○위원장 김경호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예,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

업무보고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해운대가 관광도시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관광도시인데... 우리 자체 구민들의 방역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는 관광객의 방역에 대한 노출이 상당히 힘들 텐데 지금까지는 너무 선방을 해서... 수칙을 잘 지켜주셨는지, 점검을 잘해 주셨는지 모범적인 모습으로 해운대가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한번 풀리고 나면 타격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예.

○김백철 위원

보니까 관광 유통 쪽이나 관광 사업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보니까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점검을 나간다고 업무 이후 시간에도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던데,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매번 저녁 때마다 전 직원이 다 나가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저희 과 직원이 다 나갑니다. 구청의 다른 과 직원들은...

○김백철 위원

과 직원들이 다 나가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과 직원들이 다 나갑니다. 전부 다 말은 업소가 있고, PC방이라든지 노래연습장이 해운대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락실, 일반 무인 오락실도 있고...

○김백철 위원

오락실까지도 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영화관도 있고, 관광 사업체는 127개소나 되고 해서...

○김백철 위원

숙박업체도 다 돌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숙박업체도 다 돌고... 그것은 저희가 근무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근무시간 중에 하고 있고, 교회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따로 합니다. 종교단체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수요일에 있고,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일, 일요일에 과 직원들이 교회를 다 맡아서... 거기

는 지금 금지명령은 안 하지만 제한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확인하고... 그렇게 2주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가 봐요. (웃음)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예. (웃음)

○김백철 위원

제가 이 질문을 꺼내니까 봇물 터지듯이 답변을 하시는데...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김백철 위원

제가 봐도 우리가 보건소 직원들만 고생한다고 인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생활 부근 구석구석을 찾아다니시는 부서들이 많더라고요. 관광문화과도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으신데, 관광도시인 해운대가 아직 방역으로 인해서 뚫리지 않은 게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축제나 이런 것도 많지만 지금은 우리 해운대구민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코로나19에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점검을 통해서 꾸준히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정말 지금은 그쪽에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힘드시더라도 그 부분에 치중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예, 계도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위원장 김경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입니다.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첫 임시회를 맞아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명성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박현주 경제진흥팀장입니다. 한신영 동물정책팀장입니다. 최현정 산업자원팀장입니다. 그리고 장철호 해양수산팀장은 급하게 민원이 생겨 출장을 나가서 아직 복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우식 주무관입니다. 이은주 주무관입니다. 도초록 주무관입니다. 양혜선 주무관입니다. 오정은 주무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지급, ‘~덕분에 감사 세일’ 개최, 희망일자리 사업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곤 위원 질의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도 (일자리경제과로) 처음 오셨지만 저희들도 처음인데 업무보고를 보면서 일자리경제과가 참 구석구석 여러 분야의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정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이상곤 위원

재송동에 청년채움공간, 공모한 게 많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떠한 입주 조건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뒤에 조금씩 눈에 띄는 보완할 게 있어서 보완하고 나면, 이번 8월 중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한테 좋은 제안이 하나 들어와서...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게 있었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020년 소상공인 디지털콘텐츠 인프라 시설 구축 공모사업을, 이번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거 말고 사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려고 했습

니다. 다른 디자인센터나 진흥원에 하려고 했는데 좋은 공모사업이 하나 있어서, 이게 9월 중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서... 지원을 받으면 운영할 계획인데 이 안에는 4개 동이 있습니다. 청년창업공간이 있고, VR 체험실이 있고,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다목적강당도 있고, 카페도 입주가 되고요. 그리고 1인 창조기업이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들로, 파티션이 다 구성돼 있습니다.

공모에 당선되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떨어지면 운영할 단체나 업체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이상곤 위원

거기에 청년들이 입주를 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맞습니다.

○이상곤 위원

선발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선발기준이나 운영은, 저희들이 공모를 내가지고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하고 맞춰서,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정할 계획입니다.

○이상곤 위원

초창기에 재송역 1층에 공간이 많이 있어서, 그쪽을 이런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으로 할까 하다가 다행히 이번에 이쪽에 잘 만들어져서 잘 진행하니까 고맙습니다. 잘 하려고 하니까 또 진흥원에서 이렇게 오더(order)를 주는데, 잘 마무리돼서 청년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알겠습니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곤 위원

그리고 재송한마음시장 주차장,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이상곤 위원

중단이 된 이유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중단된 이유가, 지질조사를 실시했는데 현재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구성돼 있는 그 밑의 지반에 암반이 발견되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암반을 깨는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나니까 이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다 들어내서 일단 눈으로 봐야 암반의 재질과 크기와 이런 것을 추측하기가 낫다고 해서 지금 물막이 공사나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지금은 그 들어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암반이 발견되고 난 뒤에 많이 지체됐습니다. 지금은 곧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곤 위원

예산이 좀 더 필요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지질조사 결과 2억 원 정도로 나왔는데 아마 실제로 보면 그거보다는 훨씬 적게 들지 않을까 생각이...

○이상곤 위원

그쪽에 돌이 청돌이라고 해서 단단한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를 제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재송동 그쪽 지역 전체가 돌이 청돌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 쉽지 않고 그거를 제거하면서 주변에 있는 주택까지 건드렸을 때는 민원도 있을 거고, 예산이 좀 더 투입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요.

아까 한마음시장에 환경개선을 한다는데 거기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텐데요? 왜냐하면 상인들이 서로 협조가 안 돼요. 앞에 과장님들이 몇 번 가셨는데 그 안에 상인들끼리 통일이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저도 현황 파악을 잘해 가지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암반을 제거하는 이거를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넣으려고 하니깐 예산팀에서도 이번에는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렵다고 해서 일단 다른 예산으로 공사는 진행하고, 지금 확보된 게 있으니까... 나중에 또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산 추경에라도 암반이 나오면 그거를 먼저 공사를 하고 차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곤 위원

예. 과장님, 저소득층 ‘타이머 콕’ 사업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이상곤 위원

그게 몇 년 전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몇 개 했다가 다시 하는 건 바람직한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게, 어르신들이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노인이 많은 곳에, 시·구·군에서 현재 많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이거를 했으면 싶어서 업체도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 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산은 확보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이상곤 위원

참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령층이라든지 장애인, 취약계층에 잘 추진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거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알겠습니다.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곤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상곤 위원님이 질의했던 재송한마음시장 부분에 대해서... 지질조사 결과 암반이 나와서, 먼저 시공을 하고 나서 후에 예산을 요구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그 현장을 가봤거든요. 주거지 전용 주차장하고 기존 재래시장에서 국·시비를 받았던 그 주차장하고, 높낮이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원영숙 위원

그래서 굳이 암반을 제거 안 하고, 암반을 제거 안 하면 지금 상태에서 몇 면 정도가 손해가 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그것도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닌데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한두 면을 확보하는 데 다른 지역에 하려면 많게는 몇 억 원씩 들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한 면당 7,000만 원씩 정도로 잡고 37면을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암반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사비가 얼마나 들지 들어내봐야 하는데 아마도 그거를 제거 안 하고 하면 3~4면 이상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1층에는 그 뒷부분만큼 줄어듭니다.

○원영숙 위원

3~4면이나... 그렇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원영숙 위원

저는 그쪽 부분을 조금, (손짓으로 표현하며) 이 밑에 경사 부분의 면을, 그쪽 면을 처리해버리면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저희들이 일단 위에 있는 흙을 다 들어내 가지고 최대한 어떤 게 합리적인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아니면 암반 쪽까지 다 메움을 해버리고... 되메움을 암반하고 같이 해버리고, 왜냐하면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해도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현재 낮은 층하고 암반 높이가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들어내 가지고 한번 보고...

○원영숙 위원

예,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암반을 파내지 말고 그냥 되메움을 해도 주차장으로 해서 이중으로... 왜냐하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원영숙 위원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잘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재송한마음시장을 하니까 우리 반여2동에도 전통시장 주차장을 해야 돼 가지고... 과장님,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이 올해 8월은 끝났고 내년 8월에... 전통시장 전용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되겠거든요. 차근차근 준비하셔가지고... 만드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반여2동 전통시장이요?

○박성식 위원

예, 반여2동.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알겠습니다. 저도 현황 파악을 잘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성식 위원

꼭 만드셔서 구는 구대로 하고,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알겠습니다.

○박성식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3페이지입니다. ‘~덕분에 감사 세일’ 있지 않습니까? 외식업, 호텔 등 952개소 참여인데 이거를 함으로써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일단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하고 ‘~덕분에 감사 세일’도 하고 해서 마중물 역할을 좀 해보려고 과감하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때 하는 당시에는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외식업체나 호텔도 많이 있었고요. 인기도 좋았고 자기들만의 다양한 아이디어도 내서 잘했는데 코로나19가 재유행되고 분위기가 위축되는 바람에 조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할 당시에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봅니다.

○박성식 위원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박성식 위원

마을지기사무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가 반영, 재송, 반송... 또 송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만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마을지기사무소는 제가 들은 적이 없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박성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소관 상임위로 들어왔는데 첫 상건례 겸 업무보고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임하고 있고, 꼭 필요한 질의만 하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웃음) 첫인상을 좋게 하려고 질의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감사합니다.

○김혜진 위원

일자리경제과라 하면 우리 해운대구는 국가정책보다도 더 선도적으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김혜진 위원

자긍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일자리 목표와 목표 달성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지속시켜 나가는가가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역할이 크실 거라 생각하고 또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니까 기대가 큼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

저는 제로페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제로페이라는 것의 원 취지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카드 수수료라든지 기타 밴(VAN) 수수료, 이런 부분을 절감시켜서 그들에게 부담을 좀 줄여주자는 취지로 제로페이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반기 주요성과에 보면 3,355개소를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시켰다고, 여기에 부산 1위라고 자랑하셨는데요. 제로페이 가맹점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매출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진 위원

지금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제로페이 관련해서 지역화폐라든지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 구매한 상품권으로 이 가맹점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에서 상품권을 구매해서 부산에 내려왔을 때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그거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제로페이에 대해서 숙지를 다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혹시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됩니까?

○김혜진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해운대구도 지역화폐를 발행할 의사가 있는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7~15%까지의 할인율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가 없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어드밴티지(advantage)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서... 이 제로페이 가맹점만 확대시킬 게 아니라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현재는 부산의 동백전도 있고 해서... 별도의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혜진 위원

제로페이하고 동백전은 또 다르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김혜진 위원

제로페이 가맹점이라고 해서 동백전을 쓸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백전도 제가 사용하려고 가봤더니 동백전이 가맹이 돼 있는 데가 있고 동백전을 받지 않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는 (계획이) 없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김혜진 위원

그러면 이 제로페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만드셔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으로 계시다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오시고 나서 물난리 재해가 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맞습니다.

○서정학 위원

잘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사실 여기 오니까 일의 양은 배 이상으로 많은 것 같은데 마음은 편합니다.

(장내 웃음)

○서정학 위원

안전총괄과장으로 계셨을 때도 고생하셨을 텐데, 또 누가 하더라도 공무원이 하지만 개인으로 보면 마음이 좀 편할 수가 있다고 봐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서정학 위원

해운대재래시장도 물에 잠겼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많이 잠겼었습니다.

○서정학 위원

복구한 거하고 현재의 실태에 대해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해운대시장이 40여 년 만에 그렇게 잠겼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일단 소방도 그렇고, 자원봉사도 많이 왔었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신속하게 복구가 됐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혹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조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현재는 시설 부분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시설보다는 냉장고 같은 장비하고 제품에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런 것을 아직까지 보상을 해 줄 방법이 없어서 그게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서정학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본다면 해운대가 물에 잠길 확률이 장난 아닐 겁니다. 장기적 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 위원

하반기 업무계획에 11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정원이 31명에서 현원 29명이면 적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서정학 위원

세출을 본다면 대단히 일을 많이 하시고 인력이 필요할 텐데, 직원 안 준다고 행정지원국에다가 좀 뭐라 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해 주셔도 됩니다.

(장내 웃음)

희망일자리 사업도 있어서 좀...

○서정학 위원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 게 세출로 보면 표가 나는데, 어쨌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이라는 게 주민이 잘 살기 위함이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맞습니다.

○서정학 위원

애를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

김정욱 위원입니다.

손정식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반갑습니다.

○김정욱 위원

일자리경제과 팀의 업무분장을, 단위사업을 보면 스펙트럼이 대단히 다양한데요. 유관된 중앙부처나 광역시 부처는 어디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중앙부처는 보시다시피 너무 다양해서 업무별로 다 나뉘어져 있고...

○김정욱 위원

광역시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광역시는 일자리경제실이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은 일자리경제실 안에 한 5개 과가 있는데 일자리 창업과나 서비스금융과나 이런 쪽인데 이쪽과 연계가 되고요. 나머지는...

○김정욱 위원

해양도 관련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해양 관련도 별도로 있고, 산업도 별도로 있고, 다 별도로 관련이 있습니다.

○김정욱 위원

아이고 참... 업무보고서 1페이지 밑에 창조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대부료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김정욱 위원

몇 개 기업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현재 23개 기업이 입주돼 있습니다.

○김정욱 위원

그분들의 관리는 어느 팀에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그거는 주무팀인 일자리창출팀에서 합니다.

○김정욱 위원

성과 관리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하나요? 그 기업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욱 위원

예, 자세한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맞습니다. 동물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욱 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부산시에서 반려동물 비율이 가장 높겠죠? 어느 정도로 파악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아무래도 생활 수준과 관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는 그래도 해운대구가 생활 수준도 높고 해서, 또 유기동물입양센터를 개소해놓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욱 위원

동물 병원, 약국, 판매업, 수입업, 미용업, 운송업, 보호센터, 입양센터... 많은데 하나 없는 게 야외공원 같은 놀이터가 없는데, 참 그게 만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김정욱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해운대는 도심이라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벌써 두 세 차례 무산이 됐는데... 사실 동물 놀이터 같은 게 요즘 생기지 않습니까? 재송동에도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 옥상에 생겨서 호응을 좋게 받고 있더라고요. 유료 사설 놀이터인데... 그런 걸 우리 구에서 공적으로 산 같은 데에나 주민 아파트 근처에 하는 게 어렵다면 그런 사설업체를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권장하고 그런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안 그래도 그런 쪽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아직 진행이 미미한 상태이긴 하지만 송정역사 뒤편에 유희부지가, 유기동물입양센터 옆 부지가 있는데 철도청에서 다른 민간업체하고 한 대부가 끝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거기를 사용할 것인가를 타진해 왔던데... 거기를 활용해볼까 하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정욱 위원

예, 다각도로... 주민들의 수요가 매우 높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욱 위원

마지막 짧은 질문인데 7페이지의 10번에 보면, 청사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김정욱 위원

그리고 송정항 어촌뉴딜300사업도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지금 공모에...

○김정욱 위원

오늘 안 오신 장철호 해양수산팀장님 담당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맞습니다.

○김정욱 위원

그리고 또 ‘미포항 어촌정주어항 지정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태풍이라든지 물난리 때 미포항이 아직 정주어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공식적인 피해 보상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맞습니다.

○김정욱 위원

이거는 간략하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언제쯤 정주어항으로 지정된다는 정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현재 지정을 최대한 넓게 잡아서 차후에 몇 년 후든 간에 방파제도 보강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어항 같으면 가능했는데 해운대해수욕장이 있다 보니까, 해운대해수욕장의 침식과 관련해서 환경문제를 다시 용역을 해서 세세하게 분석을 해오지 않으면 못 해주겠다고 해서 거기에 또 몇 억 원이 들고, 또 침식이 심하다고 하면 안 내줄 가능성도 있어서... 현재 있는 그 바운더리(boundary) 안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받아줄 것 같습니다. 지금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김정욱 위원

어촌계 조합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51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십수 년간 계속 여기에서 어업을 해왔던 분들이고, 기존의 해운대해수욕장 모래해변도 있지만 그분들도 어업활동과 사실적인 항구가 있던 상태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맞습니다.

○김정욱 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잘 설득해서 빨리 정주어항으로 지정을 하고 또 사후 보완을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재선인데 초선 때부터 계속 어촌계 주민들이 욕을 할 정도로 항의를 많이 하시고 제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가보는데 어젯밤에 가 봐도 너무 더럽고요. 거기가 관광특구 안에 있어요. Edge993 펜션까지 관광특구인데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하고 쥐가 다니고... 또 어촌계 옆에 화장실도 없어요. 너무 지저분해요.

연관돼서 앞에 씨랜드 횡집도 1층에 거의 영업을 안 하더라고요. 죽어있는 건물이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수영구 민락회센터만 해도 활기차게 운영되고, 방파제 쪽입니까? 광안대교가 보이는... 여러 가지 상업 호텔, 음식점, 카페 등이 있는 데는 깨끗하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는 거의 죽은 거리처럼 돼 있고 차도 주행이 잘 안 되고... 정주어항 이거를 빨리 지정하면서, 제가 그때 받아본 계획으로는, 장철호 팀장님한테 간단히 보고를 받았는데요. 매립 계획도 좀 있고, 매립이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 안 좋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필요성이 충분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맞습니다.

○김정욱 위원

너무 지저분해요.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전에 관광문화과에도 관광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2차원적인, 80년대 수준도 안 돼요. 너무 불결하다는 거죠. 해운대구청장님의 제1공약인 ‘해운대 어메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김정욱 위원

집 앞에 담배꽂초 줍고, 잡초 뽑고... 더 중요한 게 지금 우리 해운대의 관문, 때문에 바퀴벌레하고 쥐가 다니는 관광시설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해양수산팀장도 그거 때문에 열심히 움직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과장님, 2020년 일자리 창출 주민 공시 목표가 몇 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1만 1,400개로 지금...

○김백철 위원

1만 1,400개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김백철 위원

올해 꼭 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알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간단하게 조금... 과장님, 7월 14일경에 유기동물보호소에서 34마리가 폐사된 적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위원장 김경호

그거는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보도에는 그렇게 났는데 사실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폐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한 마리씩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 노인 부부가 데리고 있을 때부터, 그게 한 가족입니다. 가족에서 근친교배에 의해서 태어나다 보니까 유전자적으로도 약하고, 처음 발견 당시부터 아주 약한 상태였는데... 우리가 수백만 원을 들여서 고쳐야 할 그런 병들도 많이 앓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한 마리씩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동물보호단체에서 자기들이 살펴보고겠다고 데려간 애들조차 모두 폐사한 상태입니다. 그게 아마 불가능했던 것 같고, 시의 보호센터에 간 한 마리만 아직 살아있고 나머지는...

○위원장 김경호

폐사 원인은 무슨 병이 있었다거나 이런 게 밝혀진 게 없네요?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설사병이 있습니다. 설사병도 있고 두세 가지 병이 있고...

○위원장 김경호

34마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폐사되기까지 원인이 안 밝혀지고 치료가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대부분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경호

동물보호단체에서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고발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해운대경찰서에 고발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유기동물보호소에 동물보호단체에서 갔을 때 케이지(cage) 안에 유기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예.

○위원장 김경호

케이지를 청소하면서 유기견을 빼고 해야 되는데 있는 상태에서 막 물을 뿌려서... 그런 것도 있었다던데, 혹시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그 뒤에 특별점검도 하고, 건물이... 사실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케이지를 물청소하고 나면 깨끗이 말린 상태에서 다시 넣어야 되는데 다 안 말린 상태에서 넣은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기동물이 있는 상태에서 물 뿌리고 했다는 거는 저희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위원장 김경호

아니, 강아지가 흠뻑 젖었다면 케이지 안에 있는 상태에서 물을 뿌린 거지... 케이지가 좀 젖어있다고 해서 개들이 몸이 흠뻑 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일단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런 거는...

○위원장 김경호

1년에 5,800만 원이 시·구비로 지원된다고 하던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유기동물보호소, 누리동물병원이라고 송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어떤 제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함께 건강도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미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추교윤 청소지도팀장입니다. 하현숙 오수정화팀장입니다. 이재기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2020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자원순환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호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주택 밀집지역 정거장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반여4동하고 송정동에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재활용 정거장 사업은 버스정거장처럼 정거장이 플랫폼 형식입니다. 저희 생각은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재활용 분리 사업이 정착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이 부분이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분리수거통을 그 구역 안에만 가져와서 분리하고, 또 자원관리사를 뒀서 분리를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반여4동하고 송정동에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성식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송정동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고요. 반여4동은 삼어마을 쪽에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삼어마을 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도 있고,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 연립주택에는 반드시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저희들 정책 방향입니다.

○박성식 위원

잘 되면 타 지역으로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예, 내년 계획도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내년에는 2개소나 3개소 정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식 위원

2개소를 (확대)하면 반여2·3동에 먼저 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

○박성식 위원

대답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그것은 그때 가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예.

○이상곤 위원

과장님,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추진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2012년에 했습니까? 2014년에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2012년에 했습니다.

○이상곤 위원

차이가 많이 나죠?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지금 타 구가, 7개 구가 2019년에 했고요. 4개 구가 2018년에 하고, 2012년도에 (개정)한 이후 6~7년 안에 다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만 못 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용역은 완료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물가상승분에 저희들까지 보태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잘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곤 위원

아무래도 이것은 구민들의 생활에 밀접하다 보니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그런데 저희가 또 안 할 수 없는 입장인 게 거의 8년이 지났고요. 타 구도 다 (개정을) 했고, 또 처리 수수료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을 일부 반영해 줘야 영세 업체에서 어느 정도 경쟁에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현재 상황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태를 관망하고 최종적으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곤 위원

아무래도 중간 입장에서 양쪽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지금 수영구라든지 동래구라든지 이런 구는 아무래도 쓰레기 대행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좀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산하는 경향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오히려 주민 불편이 감소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테이크아웃 컵을 수거했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예.

○이상곤 위원

특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 사용이 많이 늘었잖아요? 한 30~40%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예, 늘었습니다.

○이상곤 위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6개월을 해보니까 어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저희가 두 트랙(two track)으로 가고 있는데요. 한 개는 테이크아웃 컵 수거함을 송정동에 설치해 놓았고, 한 개는 구남로나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 테이크아웃 컵 받아주기 업체, 무슨 말씀이나 하면 이쪽에서 사서 저쪽에 가면 (컵을) 안 받아줘서 다시 (이쪽에) 가야 하는, 그래서 버리게 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도 받아주게끔 그런 업소 30개소를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호응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같이 하려고 하니 너무 벅차고 해서 송정에 우선적으로 테이크아웃 컵 수거함을 했는데 타 구, 부산진구라든지 이런 구하고 조금 다르게 한 게 한 개는 이동형으로 설치했습니다. 바퀴를 달았습니다. 또 야간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혼합된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했고, 또 한 개는 책임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결국은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분들이 안내하는 부분도 책임제로 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완성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어서 그렇게까지 호응은 없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결국은 어디에 버려도 버릴 것이기 때문에 호응은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잘 분석해서 문제점은 바꾸고, 이 사업이 정착되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곤 위원

과장님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있었기 때문에 송정해수욕장이라든지 해운대해수욕장의 특성을 잘 아실 것이고... 테이크아웃 컵을 수거하는 데 있어서 현재 해운대해수욕장은 성향이 제가 있어 보니까 한 60%가 외국인이 많이 있고, 송정해수욕장은 내국인도 있지만 해양레저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던데요. 특히 해운대해수욕장은 외국인이 왔을 때 문구 같은 것을... 작년에도 지적했었는데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문구 같은 것이 삽입되었으면,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해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외국인들은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특히 해수욕장에 최근에는 동남아 쪽에서 많이 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잠시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결재 과정에서 부구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곤 위원

현장에서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앞으로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고맙습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무더운 날씨고 폭우도 많이 내리고 해서 참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예.

○김백철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청소 대행업체에 디지털운행기록계로 해서 대행 수수료 원가 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예.

○김백철 위원

우리가 지금 3년째입니까? 이것을 한 게...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예.

○김백철 위원

하반기에도 계속 하실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예.

○김백철 위원

업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정착이 된 것 같습니까? 불만이나...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솔직히 말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김백철 위원

짧게...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예, 반은 정착이 됐고 반은 정착이 안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백철 위원

대행업체가 지금 네 군데죠?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예.

○김백철 위원

2개, 2개네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그렇습니다.

○김백철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 질의 사항은 개인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예.

○김백철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가 온 이후에 많은 수고를 하셨죠? 재해...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예,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장내 웃음)

○서정학 위원

폐기물도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220t 정도 나왔습니다.

○서정학 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요성과를 보니까 또 새로운 아이템을 직원들에게 받아서 한 것 같은데, 오늘 하루 대청소라든지, 가정용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한다든지, 전국 최초 불법 무단투기 쓰레기 숙려기간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잘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 아쉽다고 한다면 공공용 봉투 사용 현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그것은 다음에라도 말씀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2020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보면 여기에도 세 가지는 아주 착안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하고 쓰레기통을 시범 설치한다고 하는데, 쓰레기통을 설치하는데 시범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제 나름대로 해봤고요. 쓰레기통이 온전하게 쓰레기통으로서만 될 수 있을까, 안 그러면 쓰레기가 넘쳐서 엉망진창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예.

○서정학 위원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가 10월 중에 하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예.

○서정학 위원

보통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 위원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자원순환행정 동 평가 실시에서요. 분리배출 활성화, 일회용품 줄이기 시책 등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동별 실정이 다 다른데 평가가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을... 그것은 하반기에 가서 따져봅시다. 일단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요. 자원순환과가 힘도 없는데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액션(action) 차원에서 넣어놓았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개는 동에서 자원순환과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한테 조금 사기진작을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 위원

그것은 좋은데, 평가라는 게 순위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사기진작이 안 될 수도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순위는 안 알립니다.

○서정학 위원

(웃음) 어쨌든 감량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가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늘 상임위가 바뀌고 첫 업무보고 겸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첫 이미지도 중요하니까... 어쨌든 질의·답변은 잘하신 것 같고요.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한 말씀만 좀 드리면요.

○위원장 김경호

예.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저희 과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을 집집마다 방문해서 쓰레기를 다 수거합니다. 자원순환과가 항상 뒤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마스크도 다 끼고 옷도 입고 해서 직접 집 앞까지 가거든요. 그것을 거의 4,000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주셔야 하고, 저희 과를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제공해 주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예,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서정학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마스크 제공이 있었다고 하는데, 좀 보급이 안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해주고요. 또 옷이 있습니다. 옷은 보건소에서 지원해 줘서 하고요.

○서정학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김백철 위원

위원님들을 체험을 한번 시키지요.

(장내 웃음)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그렇게 하려면 옷을 다 입고 장갑하고... 특수 장갑입니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서정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자원순환과가 고생하는 것이야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 폭우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일들도 보고, 또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들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지만 덧붙여서 정말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속으로 엄청난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관	광	경	제	국	장	백종기	
관	광	문	화	과	장	강경옥	
일	자	리	경	제	과	장	손정식
환	경	위	생	과	장	김상욱	
자	원	순	화	과	장	김인철	
문	화	회	관	장	윤창희		

○의회직원

전	문	위	원	박경문
사	무	직	원	박진우
속	기	사	김혜미	
속	기	사	이동수	